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13년 11월

선교편지 제 60 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모작 또는 3모작까지 벼농사가 가능하고, 일년 내내 바나나를 비롯한 열대 과일의 수확이 가능해서인지,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는 특별하게 '추수' 감사 주일로 지키는 절기 예배가 없습니다. 다만 교회마다 제각기 다른 시기에 다양하게 감사를 표현하며 '감사 주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디고스에 있는 마띠 교회는 10월초에 있었던 마을 집회의 은혜를 이어가기 위하여, 10월 마지막 주일을 감사 주일로 정하고, 집회에 참석한 이웃들을 교회로 다시 초대하여 풍성하게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마당에 텐트를 치고 주민들을 맞이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감사주일 예배를 위해서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도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몇몇 교인들은 지난 일 년동안 받은 은혜와 감사를 나누며 하나님을 증거 했습니다. 약 3시간 정도의 예배를 마친 후에는 교인들이 정성껏 준비한 감사 주일 만찬을 참석한 모든 주민들과 기쁨으로 나누며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감사가 기억 나지만, 무엇보다 마띠 교회가 더 이상 그전처럼 부끄럽고, 조용하고, 있는 듯 마는 듯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새 이웃을 향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시편 75:1)**

 마띠 교회의 감사 주일과 더불어 스파마스트 대학의 장학생들과도 한해를 돌아 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하는 내용을 같이 나누고, 특별히 몇몇 부모님들도 감사의 글을 보내 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 볼 수 있었습니다. 메말라 있던 작은 마을이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 풍성해 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 1:3)**

### '크리사니'와 부모님의 감사

이 제한된 글로 어떻게 제 감사한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꿈꿔왔던 대학에 장학생으로 다닌다는 사실이 제 자신을 얼마나 밝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대학에 다니지 않았으면, 아마도 돈을 벌기 위해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제가 '대학생'이라는 사실이 때때로 잘 믿어 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선교사님과의 성경 공부를 통하여 제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났고, 또한 그 길을 가고 있다고 분명히 믿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저에게까지 장학금을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멀리 있는 여러분을 통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방법이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여러분처럼 남을 돕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처음 경험하는 대학 생활로 인하여 겁을 많이 냈지만, 이제는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까지 생깁니다.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모님) 제 딸 '크리사니'를 돌보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년전에 미국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기로 했다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과연 정말 그럴까하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기에도 너무나 버거운 살림살이에 딸이 대학에 간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벌써 한 학기를 잘 마치고 두번째 학기를 다니고 있는 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기적같은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난한 이곳까지 오셔서 베푸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그레첸'의 감사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친구들도 가지 못하는 대학을,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가운데 다닌다는 것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 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벌써 대학 생활이 익숙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어찌 저와 같이 부모님도 계시지 않는 자가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대학을 다닐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제 주위에는 많은 친구들이 대학에 가고 싶어하고, 제가 모르는 수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잘 아는데, 아무 것도 없는 제가 대학교에 다니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가정을 만나게 해 주어서, 잠을 잘 곳도 해결해 주시고, 일을 하면서 공부하고, 용돈도 받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고, 눈물을 흘리며 잘 때가 많습니다. 일을 하면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지만, 여러분이 주신 장학금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부 하겠습니다. 또한 장학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 '켈리'의 감사

별로 새로운 것이 없는 제 삶 가운데, 제가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장학금을 받는 특별한 사람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제가 받은 장학금을 여러분께 다시 갚아 드리기는 쉽지 않을 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더 좋고 귀한 것으로 많이 갚아 주실 줄을 확신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제 인생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를 새롭게 깨달았기 때문에, 절대로 낭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나'와 부모님의 감사

대학에 다니면서 더욱 더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늘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가고 싶은 대학이었지만, 잘 할 수 있을까하는 두려움으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나와 친해질 수 있는 친구가 생길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미국에 있는 여러분을 이곳까지 보내셔서 잘 알지 못하는 저에게까지 장학금을 주신 과정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겁내지 말고 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학교 생활이 너무 즐겁고, 친한 친구도 많이 생겼고, 공부도 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저에 대한 부모님의 기대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 공부를 잘 마치고, 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희 부모님을 좀 편하게 해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된다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제 생애의 최고의 선물을 주신 여러분께 저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감사드립니다.

(부모님) 제 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어떻게 말로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 딸과 저희 가정에 소망을 주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딸을 인도해 주셔서 더욱 더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록 직접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큰 상으로 여러분께 대신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 '제날린'과 부모님의 감사

아직도 대학교 입학 첫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떨리고,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제가 대학에 다닐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기대 가운데 지났는데,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제 앞에 열려 있는 듯합니다. 똑똑하고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고, 꿈을 키워주는 훌륭한 교수님을 통하여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대학에서 보낸 지금까지의 시간은 저의 일생 중에 가장 많은 것을 보고, 배운 귀한 시간들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해서 선생님이 된다면, 지금까지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게 사신 저희 부모님을 잘 돕고 싶습니다. 또한 제 인생을 이렇게 크게 바꿔게 해 주신 여러분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습니다. 제가 표현을 잘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장학금을 주시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교회가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 저희 딸과 저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큰 도움을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장학금은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축복입니다. 부모이면서도 경제적인 형편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딸을 잘 교육시킬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대학에 다니며 선생님이 될 것이라는 꿈을 키울 수 있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동안 제 딸이 많이 성숙해 진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를 더욱 더 위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부하는 모습도 매우 진지해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학기에도 공부를 잘 했는데, 다음학기에는 일등을 해서 저희들을 더 기쁘게 해주겠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주신 장학금으로 인해서 생긴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께 갑절로 갚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 ‘메리 그레이스’와 부모님의 감사

우리가 사는 곳까지 한국인 선교사가 찾아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또한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많은 선물을 가지고 방문하고, 이제는 제가 장학금을 받아 대학까지 갈 수 있게된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도 좋습니다. 한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이곳까지 보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저의 관계를 깨닫게 되었고, 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도 알게 되었고, 제가 드리는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후원해 주신 장학금이 헛되지 않도록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을 다시 뵈고, 제 마음을 다하여 감사를 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평안을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 작년에 제 딸에게 가정 형편으로 인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아 보라는 이야기를 한 이후에, 제 딸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기억합니다. 농사일을 하는 저희로서는 도저히 대학 학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선교사님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아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딸 보다 저희가 더 많이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적으로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 주시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제 딸이 장학금을 받고 대학생이 된 것 뿐만 아니라, 더욱 더 진지해진 하나님의 딸로 변화되고 있음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과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 ‘밀레니얼’의 감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저의 삶을 얼마나 바꾸었는지 아마 모르실 것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경험한 많은 어려움들은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암담했습니다. 대학은 물론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을 때, 선교사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셨습니다. 많은 인내로 저를 기다려 주시고, 믿어 주시고, 또한 마치 친 딸처럼 대해 주신 선교사님은 저의 부모님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에 있는 후원자를 통하여 장학금을 받아 공부하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저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제 주위에 있지만, 그 것처럼 더 이상 절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저의 삶에 희망의 빛으로 가까이 오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를 알게 해주신 선교사님과, 그리고 특별히 장학금으로 저의 삶을 바꿔게 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 ‘카렌’의 감사

장학금을 주신 후원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작년에 이곳에 오셔서 함께 해 주시고, 어려운 저희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일 교회와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는 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벌써 일년이 지났지만,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한 일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저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언젠가는 사업가로 성공하는 것이 제 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저에게 열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예일 교회와 여러분께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 '사라'와 부모님의 감사

대학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제 삶을 바꾸어 주신 후원자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가족이나 주변에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매우 많을 터인데, 잘 알지 못하는 이곳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이 너무도 놀랍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계획하고 계시는 큰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항상 기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 여러분을 이곳까지 보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모이면서도 저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해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뿐만 아니라 좌절하고 있는 주변의 더 많은 가정이 여러분이 베푸시는 사랑을 함께 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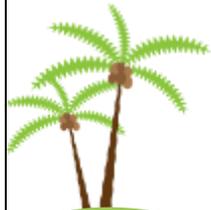
## '일리아스'와 부모님의 감사

여러분이 주신 장학금을 통하여 제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히 사랑하고 있으며,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단 한번도 제가 특별하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큰 변화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대학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성적으로 저희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려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학금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속히 다시 만나 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놀랍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아들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길도 열어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아들이 대학에 잘 적응하고, 아주 좋은 성적으로 공부 하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 할 줄 아는 아들로 성장하고 있어서 더욱 더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제 아들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이 든든해 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며 장학금으로 지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백 배로 갚아 주시기를 기도 합니다. 아멘.

### 기 도 요 청

1. 디고스 지역의 교회 건축을 위하여
2. 2014년도 마띠 고등학교 장학 프로그램을 위하여
3. 스파마스트 대학 선교를 위하여
4. 장기 체류를 위한 비자 변경을 위하여
5.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후원을 위하여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

